

2020 동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비대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



2021. 1

강*민

올해 이화 해외봉사단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도 혼자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봉사단원들끼리 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의사소통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팀은 줌, 구글미트 플랫폼을 통하여 주 1회 꾸준히 만나면서 이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팀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 열띤 회의 중에 줌 미팅 시간이 끝나서 흐름이 끊기기도 하며, 구글 오류 때문에 미팅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잊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 활동을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만큼 각자 노력하며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었기에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무사히 완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팀은 과학을 큰 주제로 하여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과학 전공을 하는 팀원들도 있었기에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많았지만,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만한 난이도의 주제를 선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내용과 실험을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잘 받아들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지 고민하며 몇 번의 수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워크북 담당자로서 책 표지 및 내지를 디자인하는 등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함으로부터 오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개념의 봉사이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배송 시 모든 내용에 대한 실험 키트를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구성한 실험 모두 유익한 내용이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는데, 아무래도 무게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물품 패킹 직전에 물품 리스트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워크북과 수업 동영상에 맞는 실험 키트를 모두 전달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품 패킹 시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친환경 포장재를 미리 준비해서 패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 전 과정에서 팀원들이 모두 수고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화봉사단 담당자분들도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후

이화 봉사단 활동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미술팀 기록과 5,6차시 교안과 수업 담당이었습니다. 처음 교안을 짤 때는 미술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교안을 짜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교안을 짤 때 생각한 것은 미술 기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훈이 있는 수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주제가 “나에 대해 생각해보기”와 “코로나 예방” 이었습니다. 그래서 5차시는 나에 관한 것을 콜라주로 표현해보는 내용으로 정했고 6차시는 코로나 예방수칙과 관련된 도안을 차가운 색/ 따뜻한 색/ 중간색을 활용해서 색칠하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날씨와 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수업을 제작해야했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도 수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이었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수혜국은 추운 겨울이 없기 때문에 단어선택이나 물품선택을 할 때 수혜국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5주차 콜라주 수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신문지로 제작하기로 결정 했었고 교안과 재료를 신문을 바탕으로 제작했었는데 신문을 수혜국에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색종이로 바꿨는데 신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글자들과 그림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여러 제약과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았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팀원들과 함께 상의하고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안제작부터 교재와 온라인강의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뿌듯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수업 내용과 교재가 수혜국의 아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혜

20살이 된 이후 나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 아동, 홀리스, 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미 기획된 봉사를 지시에 따라 했다는 점이다. 작년 본교 부설인 이대아동발달 센터에서 수업 보조 봉사를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교안을 짜면서 수업을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슨 기준으로 수업을 기획하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이화봉사단 해외봉사팀에서 음악교재와 교안을 만드는 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바로 지원했다. 교안과 교재를 만들면서 내 전공인 음악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음악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지, 음악교육은 무엇을 초점에 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했고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수업의 바탕을 기획하는 일이 즐거웠다. 한편 교안을 숙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수업 동영상을 찍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새삼 느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뜻깊은 언택트 봉사를 할 수 있어 보람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 교안과 교재를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나의 노력이 음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권*빈

평소 해외 교육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0 겨울 해외 이화봉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접 해외로 나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시연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지만, 수업 영상 촬영과 준비물 패킹을 통해 아이들에게 수업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 한 해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 덕분에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서는 큰 기술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화봉사단의 첫 과제로 주어진 주제 선정에서부터 저희 팀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학 분야를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했기에 관련 실험을 찾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수 차례의 회의 끝에 환경 오염이라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팀원 모두가 주제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결정된 이후에는 팀원 본인이 맡은 차시의 내용을 정리하고 교안과 대본,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져,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업 및 실험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닌 카메라를 바라본 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매우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끼리 영상 촬영을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촬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 팀의 역할을 분배할 때 영상을 편집할 툴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없었기에,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최대한 서로의 역할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들을 정리하여 번역을 맡은 팀원에게 전달해주거나, 본인 해당 차시의 영상 편집을 도와주었습니다.

대략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준비하면서, 봉사를 위한 마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 팀원 개개인을 알게 되고, 함께 소통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툴지만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만든 저희의 수업이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

2020학년도 2학기 해외 이화봉사단을 무사히 마쳤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처음 시행됐던 것만큼 여러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선, 안전상의 이유로 팀원들과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촬영 역시 서울에 거주하는 팀원들 위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어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 역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모두가 새롭고, 낯선 방식으로 이화봉사단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정적으로 봉사단에 임해주었기에 좋은 결실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해외 이화봉사단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수업 차시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몸을 사용하는 체육 수업의 특성상, 처음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주로 짝 활동, 팀 활동처럼 친구들과 함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지 아이들이 학교에 친구들과 단체로 모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체육 수업으로 수업 방향을 재설정해야 했다. 처음에 구상했던 수업의 방향과 아예 달라지는 바람에 내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체육 교과서나 관련 수업 영상들을 참고하며 혼자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로 수업이 채워졌다.

팀에서 영어 번역을 주로 담당했는데, 처음엔 단순히 교안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만 하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번역을 진행하면서 한국 고유의 언어적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최대한 매끄럽게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아이들이 보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는 제외하고 쉽게 설명하는 어투로 많이 바꾸어 번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나 줄넘기 차시에서 등장하는 자세를 지칭하는 전문용어로 인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학기 중에 팀원 모두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해외 이화봉사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었던 것만큼 마냥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팀원들이 서로 배려하며 매 순간 자신이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해내고 최선을 다해주었기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체육팀 수업 영상들을 통해 더 건강해지고,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활력소 같은 영상들이 되어주었음 하는 바람이 있다. 체육팀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김*운

약 세 달간의 2020 해외 온라인 교육 봉사를 끝마쳤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수업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소했지만 특별했으며, 어려웠지만 뿌듯한 경험이었다.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수정을 반복하며 준비했던 과정은 차시별 수업 주제를 정하는 부분이었다. 현장에서 학생 개인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고, 단 하나의 영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원활하게 체육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양한 학과에서 각양각색의 능력을 지닌 6명의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기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학기 중 바쁜 와중에도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며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준 체육팀 팀원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며,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더하여 팀 내에서 워크북 담당으로 있으면서 새롭게 경험하고, 도전한 부분도 많았다. 미술을 배운 적도 없었고, 제작 프로그램을 특출나게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이화봉사단 내 다른 팀들과 상호교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더 좋은 자료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하나 알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학부 생활이 마무리로 달려가면서 남은 기간을 어떤 활동으로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던 시기에,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작은 역량을 재능 기부를 통해 세계로 펼칠 수 있었던 이화봉사단 경험은 오랜기간 기억에 남아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김*지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 이화봉사단의 봉사활동들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과 풍부하고 새로운 감정을 안겨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국내 봉사활동을 통해 국내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만나며 교류할 수 있었던 봉사활동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번 학기 처음 해본 온라인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인생에서 또 다른 소중한 경험 한 장을 만들게 되었다. 매년 국내 봉사활동을 해왔었지만, 항상 해외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던 차나에 이번 년엔 온라인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는 모집공고를 보게 되어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전에 시도해보지 못한 해외 봉사활동이어서 관심이 갔었던 것도 있었지만 '온라인' 봉사활동이라는 신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타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되어 해외봉사단이 시작되었을 때 설레고 기대감에 차 있었던 기억이 난다.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팀원들을 만나며 거의 모든 봉사활동 작업을 온라인으로 시도해봤던 이번 봉사활동은 처음인지라 낯설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바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봉사활동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매력과 색다른 봉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팀원 간의 모든 소통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촬영, 스케줄 등등 많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이번 봉사활동에서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 교류, 배움이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힘든 작업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전자기기로 소통하게 된 시대에서 전자기기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 못 하는 학생과 아이들은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느낄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배움의 빈부격차를 더욱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슬픔을 느끼게 되어 이번 이화봉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봉사활동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여 활동하게 된 것 같다. 비록 아이들을 직접 만나며 가르치고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 큰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힘든 코로나 시국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아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다는 기쁨의 마음으로 팀원들과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시도해본 온라인 봉사활동이어서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기회로 봉사활동의 개념에 대한 확장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색다른 방식으로 세계 전국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경험 또한 큰 배움이자 의미를 안겨준 것 같아 뿌듯하다. 우리 팀원들이 학기 도중 만들었던 영상과 교재가 저 멀리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과 희망을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명*숙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TED'라는 강연에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내전을 겪다 미국인에게 교육을 받은 분이 강연자로 나왔던 적이 있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현재 개발도상국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힘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다. 그 강연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었다. 그런데, 현재 나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마음속으로만 열정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 COVID-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해외교육봉사가 이루어지고 보건쪽 교육도 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내 전공이 간호학이라 보건쪽에 해외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 감사하게 보건팀에 속해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COVID-19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들끼리 온라인을 통해 ZOOM으로 회의를 하고 플랫폼들을 만들어갔다. 이 과정을 통해 팀원들의 재능과 전공에 맞추어 워크북 제작, 동영상 제작, 영어 번역, 팀장 등을 맡아 서로 협력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나는 간호학 전공을 살려 전공수업에서 듣고 배웠던 개발도상국의 현재 위생과 식수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뿌듯했고, 팀원들의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보건문제들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해외봉사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 동영상을 찍어야 했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었다. 동영상이라는 한정된 매체 가운데 최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야 했기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다양한 걸 활용해서 넣었고 그 과정 가운데 언택트 시대에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에 감사했고, 아이들도 진보된 매체를 통해 다양한 혜택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직접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을 했다면 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겠지만, 동영상으로 교육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개요를 짜고 어떤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유익할까, 재미있을까 고민하면서 더욱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팀원들과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사회봉사팀에게 감사하고, 나의 작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나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란다.

 배*현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신청한 이화해외교육봉사단 활동은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닌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해외봉사단은 기존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줌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교육 자료의 내용을 기획하고, 영상과 워크북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첫 온라인 봉사라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들을 끌어냈기 때문에 더욱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해외 아동들이 겪고 있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팀원들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온라인 봉사단 활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애초에 봉사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며, 직접 만나지 않아도 봉사를 실천할 길은 있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활동은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기만 했던 봉사는 환경이나 자원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것이 아닌 봉사를 향한 마음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사는 나눔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만 먹으면 보람과 나눔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해외교육봉사단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도 해외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상황적인 어려움에 나눔을 주저하기 보다는 참여를 통해 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준 이화봉사단 단원들과 사회봉사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낸 뜻있는 활동들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단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해외 파견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안타까웠지만 새로운 형태의 봉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봉사는 면대면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봉사를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전공에서 수업계획안을 작성해보기도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맞는 온라인 수업자료를 제작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교안과 학습자료를 만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 온라인 자료의 장점은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제작한 자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조원들과 함께 처음 회의를 했던 순간이 기억난다. 처음 회의 이후 잘 할 수 있을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지 걱정이 되었었다. 그렇지만 조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봉사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만나진 못했지만 함께 한 조원들에게 고맙고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손*현

모든 활동을 끝내고 돌아보니 지난 3개월은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나에게 이화봉사단은 진정한 봉사의 의미, 그리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이라 차시를 나누어 교안을 작성하고, 수업 별로 알맞은 교구를 고르고, 직접 수업을 시연하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 낯설었다. 수업을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만들어내다 보니 고려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았다. 단체로 모일 수가 없는 시기이기에 혼자서 해도 괜찮은 활동인지, 그 활동이 재미있을지, 활동이 너무 따라 하기 어렵지 않을지, 유치하다고 느끼지는 않을지, 그 활동에 알맞은 교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교구가 무겁지는 않을지, 망가지지는 않을지, 교구를 사용하다가 행여나 다치지 않을지, 영상을 찍을 때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말을 해야 아이들에게 올바른 체육 활동 자세를 알려줄 수 있을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렇게 항상 마음 한 켠에 두고 있을 수 있음에 나 자신도 놀랐다. 봉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봉사의 의미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활동을 끝내기 직전까지 신경을 써야 할 점이 정말 많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팀원들 덕분이었다. 6명에서 매주 의견을 나누다 보니 생산적인 안건들이 매주 쏟아져 나왔고,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도 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모든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봉사 정신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법과 협력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돌이켜 볼수록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아쉬웠다. 단체 활동이 가능했으면 아이들에게 더욱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알려줄 수 있었을 건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비록 온라인 활동이었지만 이화봉사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꼭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

양*은

저학년 때에는 국내 교육 봉사를 한 후 고학년 때 해외 교육 봉사를 꼭 다녀오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만큼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섯 분야 중 특별히 지망한 분야가 없어서 배정된 대로 음악팀 소속이 되었는데, 음악 전공자가 세 분이나 계셔서 수업을 위한 음악 전문 지식에서 막히지 않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매 회의는 Zoom으로 진행되었고, 온라인 모임이다 보니 밤에 약속을 잡을 수도 있어서 이전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이화봉사단 활동들보다 모이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화봉사단 측에서도 첫 번째 도전이고 팀원 모두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같은 자리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영상이 더 명확해야 했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업 영상만 가지고 리코더를 연주하는 법을 학생들이 다 배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영상은 여러 번 반복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어쩌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수업 영상을 차시마다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로 등장했는데, 이점은 추후에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교사-학생 간 유대가 있어야 학생들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매 차시 다른 선생님이 등장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수업 내용 전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악팀 내에서는 워크북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다른 과목 분야의 워크북 담당자분들과 협력하여 하나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음악팀의 워크북을 제작할 때는, 악보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서 학생 연습용 악보를 만들 때는 하나하나 그림으로 편집하여 제작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팀의 워크북이 다른 팀과 독립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분야의 워크북이 하나의 워크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 팀의 특수성과 다른 팀과의 통일성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통일된 하나의 교재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각 팀에서 원하는 최적의 형태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형식상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 인덱스와 표지-목차-내용 구성을 통일하여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 직전에는 인쇄 업체의 요청에 따른 여러 번의 수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을 통한 완성본이 수업에서 활용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미래 예비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 학생으로서 이번 온라인 해외 봉사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경험해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으로만 활동하여 팀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과 학생과의 만남의 부재는 매우 아쉽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졸업 전에 온라인이 아닌 해외 교육 봉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수

졸업하기 전에 해외교육봉사를 꼭 해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마침 교생실습때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내가 배정받은 과목은 미술이었다. 팀원들과 줌으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미술로 표현하는 나'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을 수정, 보완했다. 사는 나라도 다르고 수준도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어떤 미술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전공수업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미술 활동을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는 미술 수업을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수업 설계 과정에서는 수업자의 역할을 맡아 단순히 2차시 분량의 수업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봉사임을 고려하며 수업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학생들의 집중을 위해 수업 영상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 수업 내용을 자막으로 띄우기 때문에 교사의 모든 발문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 교안을 계속 고치는 것, 필요한 재료의 무게나 가격까지 계산하며 물품리스트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것 등 수업자가 온전히 수업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재료로 즐겁게 미술 활동을 하며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다. 총 6차시의 미술 수업을 만들면서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번역, 영상 촬영, 회계, 기록, 워크북 제작을 맡은 미술팀원 모두가 협업하여 더욱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사회봉사팀 선생님께서 교안이나 물품리스트 등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셨고, 좋은 촬영장소를 알아봐주시는 등 다방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해외교육봉사를 통해 다양한 학습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직접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예비 교사로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만든 수업 콘텐츠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미술 활동을 하고,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보는 행복하고 유의미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연

교육공학과를 복수전공으로 가지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동안 전공 강의를 통해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과 팀 프로젝트로 설계 과정까지 진행해온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해보는 단계를 거치고 싶었는데, 이화봉사단에서 온라인 해외 교육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보고 고민 끝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공 강의에서는 주 전공으로 가지고 있는 영어교육을 설계하거나, 기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만 설계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과학 분야에 대해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주제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문과를 공부하면서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접해보지 못했던 과학 분야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떠올릴 수 없었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해외 아동들의 연령과 지적 수준에 맞추어 세부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 시연 영상을 촬영을 진행하는 것에도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외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저는 안전상의 우려로 학교에서의 스튜디오 촬영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원활한 촬영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해외 교육 봉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고민이 많이 있었지만, 팀원분들이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그에 따른 촬영 방식을 전달해주셔서 원활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는 한 학기 동안 쉽진 않았지만, 앞으로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저의 입장에서 교육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신 과학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저희 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해외 아동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경

이화봉사단 활동은 지난 겨울 국내봉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내 봉사를 하고 해외 봉사를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해외봉사단에 지원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 파견 가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한 수업 내용 구성부터 교안 작성, 워크북 제작까지 줌(ZOOM)을 통해서만 화상으로 조원들과 토의하며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한 번도 조원 전체를 만나지 못해 아쉽기도 하다. 그렇지만, 외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문화, 언어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봉사활동은 무엇보다도 수혜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팀장을 맡아 열심히 임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잘 따라준 보건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꼭 파견되어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

 이*은

2019년, 가재울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의 체육수업을 맡아 지도했었다. 혼자 교안을 다 작성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었지만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기다리고 멀리서 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반대로 엘리트 수영선수의 꿈을 포기한 후에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재울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육에 흥미를 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 뿐 만이 아니라 해외의 아이들도 체육을 즐거움을 알고 평생 체육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이화봉사단에 지원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모든 활동이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지금 진행하는 수업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너무 쉬운 난이도인지 하나도 알 수 없으니 교안을 구성하고 촬영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활동에 임하려고 노력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점점 집에서만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화봉사단에서 준비한 체육 수업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진행된 해외 온라인 교육봉사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였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회의하고 7차시의 수업을 구성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직접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체육의 즐거움에 대해 많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주 회의하고 시험기간 임에도 열심히 모든 활동을 함께 참여한 체육팀, 6명이 함께였기에 더욱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짧은 3개월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모두 고생했다고 전해주고 싶다.

임*주

2020년 10월부터 4개월동안 진행된 이화봉사단 해외 온라인 교육 봉사가 팀원들과의 무던한 노력 끝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내기 때부터 해외 이화봉사단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계속해서 지원 시기를 봐왔던만큼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번 봉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파견이 불가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 아쉽기도, 걱정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팀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연대의식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 담당자로서 영상을 제작하려면 모든 팀원과의 빠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서 팀원들이 잘 따라와주었고 그러면서 팀원과의 융통성있는 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촬영과 영상 편집이 들어가는 시기에는 각 팀 영상 담당자들과 단체로 연락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영상 편집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보자의 눈에서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드리면서 점차 조율점을 찾아갔고 서로 막히는 부분들을 공유하며 해결해나가기에도 했습니다. 또한 디자인 전공자로서 교안 제작이 조금은 낯설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온라인 교안 제작의 전 프로세스를 겪는 동시에 아이들의 시각을 고려했을 때 보기 좋은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위해 이번 활동에 지원했었지만 오히려 제가 얻어가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장*영

졸업을 하기 전에 해외 봉사를 해보고픈 소망이 있었다. 그동안 이화봉사단 국내 봉사를 하면서 만난 아이들과 같이 지낸 벗들과의 시간이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에 해외 봉사도 꼭 한 번쯤은 참여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음에 행복했지만, 여러모로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 가장 큰 아쉬움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수업 영상을 계획하고 만들 때 '직접 만났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조금은 섭섭했다. 그렇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마냥 골머리를 앓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성숙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번 봉사를 통해서 배운 점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대면으로 하는 봉사만큼 팀원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던 터라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과 조금씩 가까워져서 막바지에 교육 영상을 찍을 때쯤에는 어색함 없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번 봉사가 특히나 더 특별했던 이유는 봉사자 각자가 가진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였다. 내가 맡은 부분은 영어 번역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종종 영어 번역을 의뢰를 받아본 적은 있었지만, 영어 번역을 봉사 활동으로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내가 여태 해온 번역 중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번역했다. 내가 번역한 말들로 몇백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리라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더 뜻이 더 잘 통하게 번역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수업 영상에 실린 영어 자막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벅찬 마음도 들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재밌어하고 잘 들어준다면 그보다 더 기쁠 수는 없을 것 같다. 부디 우리의 랜선 만남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전*원

이화 해외 봉사단을 통해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은 교안을 담당하였는데 컨셉을 정하고 직접 포맷을 기획하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미술팀에 속하여 누가 봐도 미술과 관련된 교안임을 알 수 있게 '수채화 기법'과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작했다. 교안에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예시들을 넣고 워크북도 제작했는데 이 과정이 뜻깊었다. 영어 버전과 캄보디아 과정 두 가지의 버전으로 작성하였는데 언어의 길이와 특성에 따라 구성을 조금 다르게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수업 동영상 촬영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을 했는데, 시연하시는 팀원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깜짝 놀랐고 같은 팀에 속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다. 영상 촬영에 관심은 있지만 보조하는 역할만 해왔는데, 주도적으로 컷편집과 촬영을 주도하시는 영상 제작 담당 팀원분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외에도 수업 기획부터 준비물 구입, 교안 제작, 영상 촬영을 전 과정에 참여했고 우리만의 수업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6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이 과정을 해냈다는 게 신기했고, 부지런한 팀원들 덕분에 많이 자극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하자면, 온라인으로 봉사를 진행할 때에는 한 팀의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도 좋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일정이 매우 빠빻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시험기간에 대한 고려 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것은 아쉽지만, 이전에는 한 국가의 아이들만 만났다면, 지금은 동영상 콘텐츠라는 우수하고 일관된 퀄리티로 많은 국가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계속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준비물을 구입하고, 교안을 제작하여 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후에 짧게라도 우리의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소감이나, 활동을 통해 제작한 제품을 보는 등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뿌듯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을 마주했을 때 더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조*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아메바에게 규칙적인 형태는 없지만 크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이화봉사단에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일정 조율과 의견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했을 뿐더러 팀장이었기에 모든 단계와 상황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이는 이전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꿔놓았다. 하지만 기존에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창의력을 더해 수업 내용을 다채롭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나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학습하는 단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한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던 점이 유일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가 사랑하는 운동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행복했고, 열의가 넘쳤다. 본인은 혼자서 하는 운동보다는 모여서 함께하는 운동을 즐겼기에 코로나로 인해 교안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운동 중심으로 변경해야 함이 모두가 조금은 덜 즐거워야 한다는 사실로 와닿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굳이 어쩔 수 없이 혼자서도 영상을 보며 영상 속의 우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이, 즐겁게 수업을 만들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기로 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전체 수업을 아우르는 틀을 구상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zoom 회의만으로도 훌륭하게 교안을 작성해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촬영 및 편집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학기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스스로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좋은 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한 학기 간의 봉사활동이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고*선

대학생 때 해외 봉사를 꼭 해보고 싶었던 목표를 갖고 있었고 평소 관심이 있던 아동들을 위한 봉사를 이화봉사단에서 진행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해져 안타까웠지만, 그 점이 무색하게 팀원들과 마음이 잘 맞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짜야 하기에 회의도 굉장히 오래 하고, 수정도 여러 번씩 해가며 틀을 잡았습니다. zoom을 통해 회의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팀원들과 서로 피드백도 성실하게 해주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해냈습니다. 직접 수업을 시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내주는 것이기에 해외 아동들이 영상들을 봤을 때 이해가 잘 되는지, 대본에 혹시 어려운 어휘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회계를 맡아 구매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찾아보고 촬영 진행과 회의 때 필요한 물품 구매를 맡았습니다. 저의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팀원들 모두 함께 사야 할 제품들을 찾아봐줬고, 저 또한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께서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에 영상 편집을 조금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팀원들끼리 각자 분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서서 도움을 주고받아 더욱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막까지 전부 입힌 영상까지 보고 나니 3개월 동안 함께 노력한 결과가 보여 매우 뿌듯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 직접 만날 수 없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봉사단 영상 제작이라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팀원들과 이화봉사단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 뭔가 하나라도 했다는 결실이 보여 스스로에게도 힘이 되어 지금과 같이 무력감을 쉽게 느끼는 상황에 꼭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 또 기회가 온다면, 서로 눈을 직접 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또다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힘들게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학습을 지속해 나가고 있을 해외 아이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상 초유의 온라인 회의로 의견은 나누고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처음에는 다들 낯설고 서툴렀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더욱 원활하게 의견을 공유하며 모두가 더욱 능숙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쉽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내용이라도, 아이들의 나이가 높으니, 환경에 맞추어 의미 있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학습자의 입장, 아이들의 입장에서 여러 번 생각해보면서 보다 최적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의 차시에 맞게 수업 내용과 실험을 직접 구상하니 본인이 맡은 차시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되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과 영상에 대해서도 과학팀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에 능숙한 팀원이 없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촬영 방식에 어색했고 많이 버벅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팀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발벗고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의 자세 또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영상을 다루게 되었는데 봉사의 한 방식으로서 영상 편집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혼자 모든 영상을 맡았다면 다해내지 못했을 일들을 팀원들이 각자의 차시를 분담해서 자막 작업을 서로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완성해나가니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고, 패킹 작업 때도 본인 차시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서로를 돕는 모습을 통해, 함께한 팀 구성원들께 느꼈던 감사한 마음과 감동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다른 도움을 주신 담당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저희의 활동으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

지난 2019 동계 국내 이화봉사단을 경험한 뒤로 교육봉사에 지속적인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2020 동계 해외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해외로 직접 파견은 나가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만큼 열심히 활동 준비에 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첫 만남을 가졌는데, 과학 분야에 적절한 소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만큼 너무 어렵지 않은 난도의 소주제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몇 차례 주제 변경을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팀원들 간 활발한 아이디어가 오고 간 덕분에 환경오염을 주제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각자 담당한 차시에 맞게 교안과 대본을 작성한 뒤, 오프라인에서 수업 설명과 실험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매체를 통해 수업을 듣는 만큼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팀원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 영상을 찍는 경험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종종 NG가 나기도 했지만, 팀원들 간 열심히 응원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수혜기관으로 물품을 배송하기 전날 팀원들과 만나 아이들이 원활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수제로 실험 키트를 제작한 일이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팀원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함께 물품 배송을 준비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원활한 교육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준 과학팀 봉사단원들에게 고맙습니다. 이후 이화봉사단이 온라인 방식을 유지할 경우, 이번 2020 동계 해외 이화봉사단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진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학기 이화 봉사단 해외 교육 봉사를 맡게 된 작곡과 배은진입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전공과 학년이 다른 팀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팀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통해 봉사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 혼자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교안 제작이나 동영상 제작 등 어려워 보였던 과제들이 모두의 의견을 조합해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 해외에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음악 동영상을 제작했던 경험은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곡과에서 공부하고는 있지만 음악 교육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언어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깊이 감명받게 되었습니다. 이화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다시 한번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좋은 팀원들과의 교류는 코로나로 단절된 일상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었으며, 팀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은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봉사 활동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험공부와 봉사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팀에서도 최대한 학생들의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봉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꼭 이화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싶고, 다음에는 학생들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서*진

이번 해외교육봉사로 처음 이화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원래는 해외에 가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학습용 교육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의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자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전혀 아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교육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팀원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회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팀원을 정말 잘 만났다'라는 것이었다. 모든 팀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일들이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끝났다. 각자가 맡은 바를 정말 열심히 잘 해주어서 다들 너무 고생했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음악팀 최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오프라인으로 1번 밖에 못 만났다는 점이다. 많이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친해지기 조금 어려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나는 이번에 자원해서 영상 편집을 맡았다. 이전에는 영상 편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어 자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는 자원한 내 자신을 매우 혼내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편집 프로그램도 중간에 바꾸면서 편집이 익숙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2개의 영상을 완성하다 보니 점점 자막을 넣는 것도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편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모든 영상을 만들고 난 후에 내가 편집한 영상을 한 번에 꼭 이어 보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보람찼다. 영상 편집이 아무래도 후반부에 업무가 몰아치는 느낌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더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이화봉사단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과 상관없이 모든 단원들이 열심히 한 것 같아 우리의 결과물이 앞으로 있을 봉사단 활동에도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여태 해왔던 다른 봉사활동과 매우 달랐다. 직접 해외에 나가 아이들을 만나보지 못했으며, 같이 활동을 하는 팀원들도 카오톡과 줌 회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봉사단 활동에서 대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아쉬움이 남았지만,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아이들을 위해 교육 영상 기획과 교재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졌던 것 같다. 교안 기획부터 수업 준비물 구매, 워크북, 영상 제작까지 전부 팀원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에 성실히 임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비대면 소통의 특성상 팀원들 간의 소통이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 이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팀장님 덕분에 완성도가 높은 교안을 기획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미술팀 모두가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여 결과적으로 각자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매년 꾸준히 교육봉사를 해왔지만 이번 봉사활동은 더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해외 봉사활동, 프로젝트가 중지되어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도 이화봉사단의 온라인 해외 봉사활동과 같은 비대면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봉사단 활동에 참여를 했지만, 훗날 상황이 나아진다면 직접 가서 대면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경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기존의 해외교육봉사단과는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요. 사실 처음에는 가르칠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고, 조원들의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단은, 처음의 이 이 인상과는 반대로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경험이었습니

다. 우선, 공동의 목표를 통해 모인 조직의 강력함을 배웠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질서 없이도 사람들 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냈고, 모두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화상회의, 통화, 메신저를 통한 소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의 개념 없이 상호작용의 망이나 공동의 관심사만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저는 이것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가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상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조금이나마 엿보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다음으로, 조원들 간의 거리처럼 학생들과의 거리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해외에 갈 수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봉사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번 이화 해외교육봉사단의 성과는 교육 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남을 돕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적 공동체가 지리를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문화도, 생각도 다르지만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감동적입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이들이지만, 활동하면서 남모를 애착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교훈을 얻은 이화봉사단이지만, 저 자신의 성과에는 부끄러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인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결과물 또한 보면 볼수록 아쉬운 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이화봉사단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더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보람찬 경험 할 수 있게 해준 조원들과 선생님, 아울러 이화봉사단 전체에 감사드립니다.

조*희

2020-2 해외 이화봉사단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기회가 생겨 기쁘고 설레기도 했지만,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또한, 체육이라는 나의 전공과는 무관한 팀에 배정되어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알찬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잘 서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걱정과는 달리 훌륭한 팀원들 덕에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모든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각자의 시간을 쪼개어 회의에 참여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초등학생들과 소통해본 경험은 거의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안을 작성하고 강의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졌다.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교안을 작성하고 수정해나갔던 것 같다. 체육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체육을 전공하는 팀원들이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고, 또 다행이었다. 교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팀원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느끼기도 했다.

영상 촬영 당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팀원들 위주로 촬영을 진행해야 했다는 점이 안타깝고 미안했지만,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다. 활동 당시 필수 교양 과목인 '나눔리더십'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참된 나눔'을 몸소 실천할 수 있어 정말 뿌듯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한 체육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채*수

한 학기 동안의 이화봉사단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이화봉사단'은 내가 1학년이었을 당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만난 선배 언니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활동이다. 이화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신 언니의 말씀을 듣고 '2학년이 되는 내년에 꼭 지원해보아야지'하는 다짐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마침 2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이화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난 바로 지원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예전처럼 해외로 파견을 가 대면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현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학습용 교육 자료를 기획 및 제작하여 필요한 국가나 기관에 제공하는 활동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직접 대면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도 영상과 교재를 만들어 봉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번 해외 온라인 이화봉사단은 음악, 미술, 체육, 보건, 과학 다섯 개의 분야가 있었고, 나는 이 중 '보건'팀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현재 융합보건학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나의 전공이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하고 기쁠 것이라 느꼈다. 아직 4학기밖에 배우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융합보건학과에 재학하며 느낀 '보건'이란 개개인보다는 공공의 건강을 추구하여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건이라는 학문이 주는 가르침과 같이 나 또한 사회에 헌신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즉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모든 일상과 삶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 나는 보건 전공자로서 이번 이화봉사단을 통해 수혜 국가 초등학생들에게 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건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 이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어 정말 기뻐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접 해외파견을 가서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학습용 교육 자료를 기획, 제작하여 제공하면서 이것 또한 현 상황에 맞는 아주 뜻깊은 봉사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팀 내에서 '워크북 제작'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다. 아이들이 영상을 보며 수업을 들으면서 간단한 문제도 풀어보고, 그림도 그리며 좀 더 흥미 있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워크북을 만든 것이다. 최종 워크북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뿌듯하였고, 특히 만드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비록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ZOOM을 통해 만나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며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활동해준 우리 보건팀 팀원 모두에게 정말 고마웠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견을 내주고 모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화봉사단은 나의 2학년 시절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 활동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해나가고 활동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현 상황에 맞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봉사'란, 남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앞

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을 함께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웃사랑의 이화정신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회봉사팀, 이화봉사단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황*원

올해 겨울 해외 이화봉사단은 코로나 19로 기존의 해외 이화봉사단 활동 방법과는 다르게 교안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학팀으로 배정을 받고 팀원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인사를 나눈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활동 주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체의 구성을 주제로 활동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아동들이 배포되는 영상과 교안만으로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지가 걱정되어 환경 보호로 주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직접 파견되어 교육 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상만으로도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고 어렵지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고안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공의 팀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여러 자료들을 공유하며 적합한 주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제에 맞는 활동 내용을 구상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교안을 작성하고, 워크북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교육 자료를 하나씩 완성하였습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매주 활동 목표를 계획적으로 수행하며 최대한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워크북의 경우 최대한 간결하고 그림 위주로 구성하여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업 영상을 촬영하는데 다른 팀과 적합한 촬영방식이 무엇이며 코로나 19로 모든 팀원이 함께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어떻게 촬영할지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해외 이화봉사단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의 버벅거림이 있었지만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 교안을 작성할 때는 더 다양한 실험을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배송 상의 어려움 때문에 영상에서 소개로 그쳐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직접 아이들과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며 전달할 수 없다는 점, 팀원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활동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점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고 여러 상황들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화봉사단원으로서 제작한 이번 교육 자료들이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기관의 아동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